

2026 AI 활용 사례 공모전 · 생활 속 AI 활용 — 가사·육아 보조

뿌앵

새벽 3시, 아기 울음을 통역하는 AI 육아 비서

필요할 때마다 AI로 하나씩 만들고, 그걸 매일 쓰다 보니 서비스가 됐습니다.

토스 앱인토스 미니앱 · iOS / Android 앱



아기는 말 대신 읊니다

첫 아이를 키우며 매일 부딪힌 세 가지 벽

왜 우는지 모른다

배고픔? 복통? 졸음? 안아 보고, 먹여 보고, 기저귀를 갈아 보며 밤새 시행착오를 반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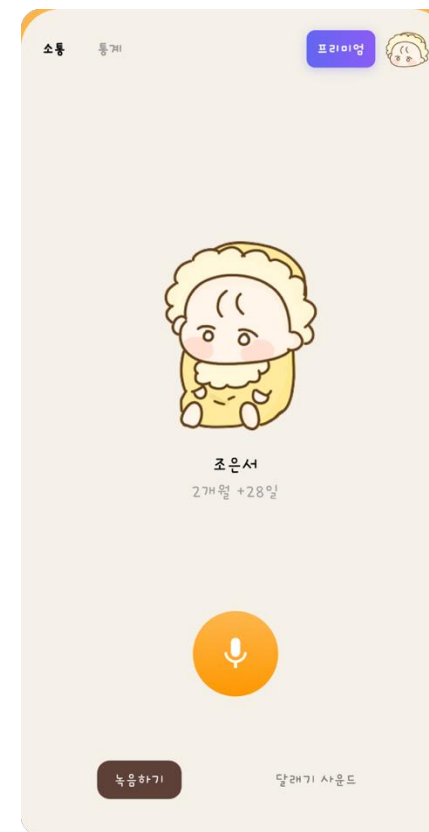
기록이 흘러진다

수유·수면·기저귀 메모가 수첩과 메신저에 흩어져, 부부 교대 때마다 “마지막 수유가 언제였지?”를 물었어요.

정보가 넘친다

검색 결과는 제각각이고, 열이 나는 새벽엔 어느 응급실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했어요.

필요한 건 ‘**나 대신 기억하고, 울음을 해석해 주는 조력자**’였습니다.



한 번에 만든 게 아닙니다

불편함 → AI로 만들기 → 매일 쓰기 → 새 불편함. 이 네 단계가 다섯 바퀴 돌았습니다.

1바퀴

7월 초

왜 우는지 몰라서



울음 통역 AI

2바퀴

7월 10일

AI가 자꾸 틀려서



부모 교정 버튼

3바퀴

7월 중순

**기록이 쌓이니까
궁금해서**



육아 기록 · 인사이트

4바퀴

7월 17일

새벽에 열이 나서



응급실 지도 · 119

5바퀴

7월 18일

**지인의 한마디에
서**



유모차 대여 지도

기획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날그날 불편한 걸 하나씩 없앴을 뿐입니다.

만든 기능을 매일 쓰다 보면 다음 불편이 보였고, 그게 다음 바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라서

이런 게 불편했어요

새벽 3시, 아기는 우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30분 넘게 안아 보고 먹여 보며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버튼 한 번에 7초를 녹음하면 네 가지 상태로 분류해 줍니다.
결과는 신뢰도(%)와 함께 아기 1인칭 말투로 와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 확신이 낮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배고파요



배가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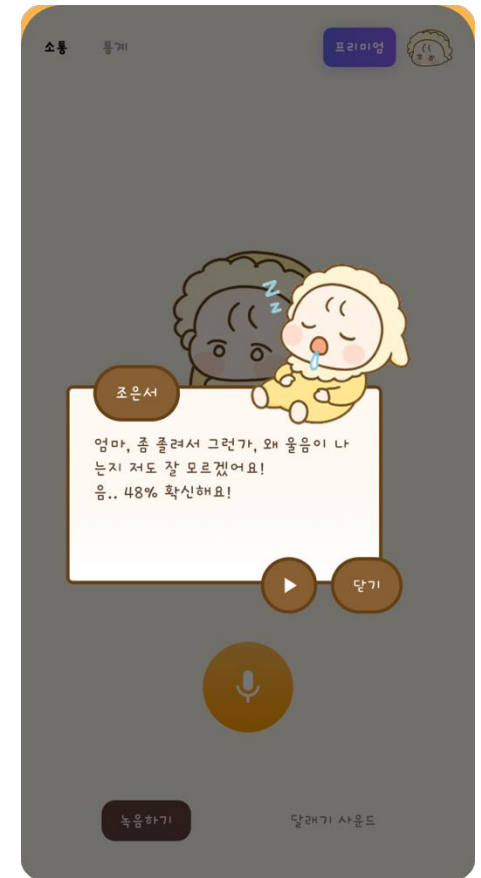


트림하고 싶어요



졸려요

쓰다 보니 → AI가 틀린 날이 생겼습니다.



AI가 자꾸 틀려서

쓰다가 생긴 불만을 그대로 다음 기능으로 만든 첫 사례입니다.

이런 게 불편했어요

“졸린 것 같아요”라는데 사실은 배가 고팠던 적이 있었어요. 아기마다 울음이 달라서 범용 모델엔 한계가 있더군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결과 화면에 ‘결과가 달라요?’ 버튼을 붙였습니다. 실제 이유를 눌러 알려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른 즉시 통계가 교정되고, 동의한 경우에만 음원과 정답이 학습 데이터로 쌓입니다. 쓸수록 우리 아기에 맞아 갑니다.

쓰다 보니 → 교정 기록이 쌓이니 패턴이 궁금해졌습니다.



기록이 쌓이니 궁금해서

이런 게 불편했어요

울음 기록은 쌓이는데,
수유·수면 기록은 여전히 수첩과 메신저에 흩어져 있어서 겹쳐 볼 수가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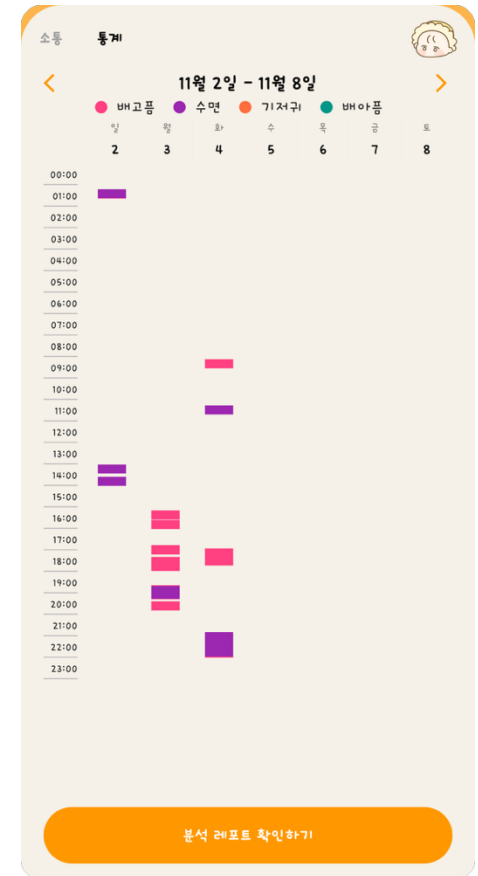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수유·수면·기저귀·목욕·체온·성장 6종을 원터치로 기록하고,
울음 기록과 겹쳐 보는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간 루틴표와 분석 리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 “수유 간격이 3시간을 넘기면 ‘배고파요’ 울음이 는다”는 우리 아기만의 패턴을 찾았습니다.

쓰다 보니 → 그런데 아플 때는 기록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새벽에 열이 나서

이런 게 불편했어요

아이가 열이 오른 새벽, 어느 응급실이 문을 열었는지부터 검색해야 했어요.
그 몇 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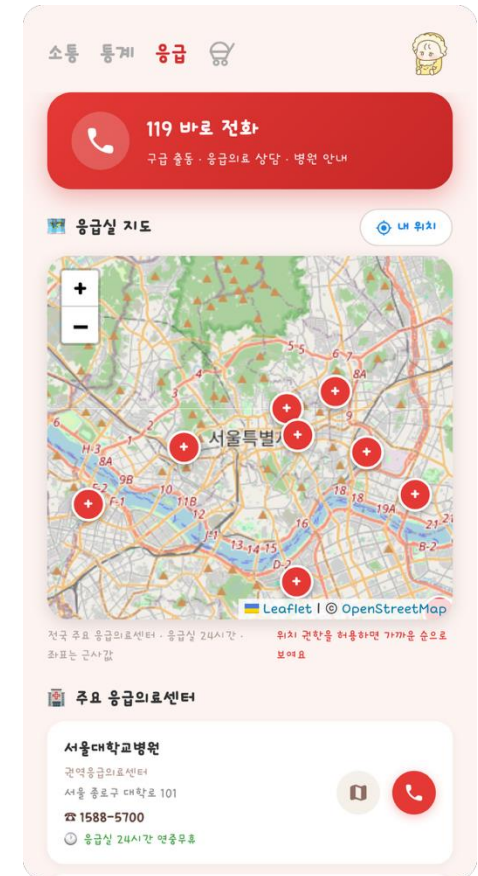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내 위치에서 가까운 응급실을 지도와 목록으로 보여 주고,
119를 한 번에 걸 수 있는 응급 탭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소·전화·길찾기가 카드 하나에 들어 있어요.
고열·열성경련·기도막힘 같은 상황별 응급처치 안내도 함께 넣었습니다.

쓰다 보니 → 급할 때 지도가 되니, 평소 나들이에도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지인의 한마디에서

가장 최근에 돈 바퀴입니다. 이번엔 내 불편이 아니라 지인의 불편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게 불편했어요

“아기 데리고 나가는데, 유모차 빌릴 수 있는 데 없나?”
검색해도 흠어진 블로그 글뿐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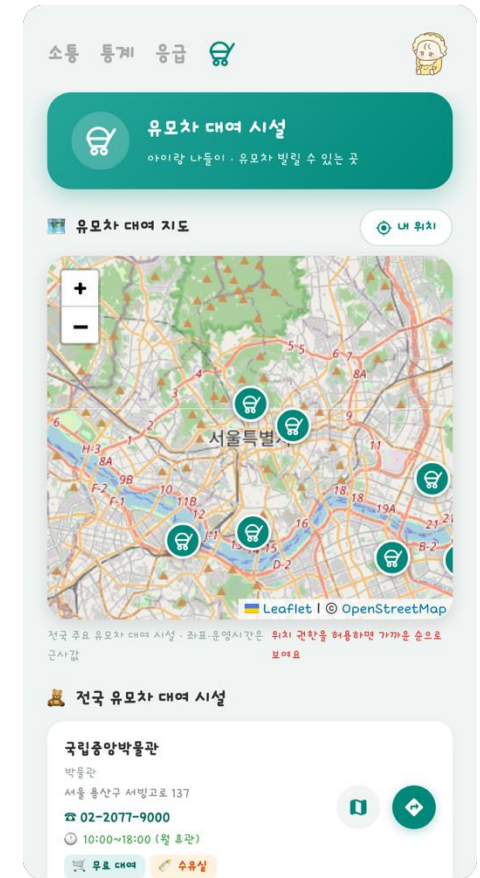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
유모차를 빌릴 수 있는 곳을 지도에 찍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 위치에서 가까운 순으로 보여 주고,
무료·유료 대여와 수유실 여부를 배지로 표시해요. 전화와 길찾기도 바로 됩니다.

쓰다 보니 → 나 혼자 쓰려던 게, 어느새 남에게 원하는 것이 됐습니다.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나

생활 속 불편을 만나면, 그 주에 해결하기

전업 개발팀 없이 AI 코딩 에이전트와 한국어로 대화하며 기획 → 코드 → 검증 → 배포까지 혼자 했어요.

AI가 한 일

- 화면·기능 코드 작성과 수정
- WHO 성장 표준·접종 일정 데이터 정리
- 공공데이터 구조 파악과 필터링
- 18개 언어 번역 초안
- 아기 말투 문구 다듬기

내가 한 일

- 문제 정의 — 실제 육아에서 겪은 것만
- 결과 검증 — 매일 쓰면서 고칠 곳 찾기
- 기준 결정 — ‘의학적 진단 아님’을 고지
- 무엇을 만들지 / 말지 판단



1인

기획부터 배포까지

20+

만든 기능 수

18개

지원 언어

3종

미니앱·앱·위치

우리 집 육아, 무엇이 달라졌나

Before — 앱 쓰기 전

울음 대응

안아 보고 먹여 보며 30분+ 시행착오



육아 기록

수첩·메신저에 파편화, 자주 누락



교대 육아

말로 인수인계, “언제 먹었지?” 반복



새벽 응급

그제서야 검색부터 시작



주말 나들이

유모차를 챙길지 몰라 전화로 확인



After — 뿌앙과 함께

7초 녹음 → 약 12초 만에 원인 우선순위 확인

원터치 기록 → 주간 리포트 자동 생성

공유 코드로 부부·조부모가 같은 데이터를 봄

내 위치 기반 응급실 지도 + 119 원터치

지도에서 대여 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

‘감’으로 하던 육아가 ‘근거’ 있는 육아가 됐습니다. 덜 불안해지니 아기에게 더 다정해질 여유가 생겼어요.

나 혼자 쓰려던 게, 서비스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나도 써 보자”가 이어졌을 뿐이에요.

1

나

새벽에 혼자 쓰려고
만들었어요.

2

배우자

교대할 때 같은 기록을
봐야 해서 보호자 공
유 코드를 만들었어요
.

3

조부모

말길 때도 기록이 이어
지도록 큰 글씨와 버
튼 하나의 화면으로.

4

지인

“나도 써 볼 수 있어?”
유모차 기능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5

미니앱 공개

설치·가입 없이
토스에서 바로.
18개 언어로
다른 집도 쓸 수 있게.

18개 언어도, Apple Watch도, 처음부터 계획한 게 아닙니다.

다문화 가정인 이웃이 쓰려면 번역이 필요했고, 아기를 안고 있으면 폰을 꺼낼 손이 없어서 워치로 녹음하게 만들었어요.
전부 누군가 실제로 쓰다가 막힌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따라 하기

이 AI 기능들, 이렇게 쓰세요

만드는 법이 아니라 쓰는 법이에요. 설치도 가입도 없이, 지금 바로 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토스에서 '뿌앙' 검색

앱을 새로 깔 필요도, 회원가입도 없어요.
토스 검색창에 뿌앙을 치면 바로 열립니다.

2 울면 버튼 한 번, 7초

아기 울음에 폰을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
세요. 7초 뒤 “지금 배고픈 것 같아요”처럼
알려줘요.

3 다르면 알려주기

결과가 틀렸다면 ‘결과가 달라요!’ 버튼을
누르고 실제 이유를 골라 주세요. 보정을
통해 우리 아기에게 맞춤화됩니다.

4 먹이고 재울 때 한 번

수유·수면 버튼을 눌러 두면 주간 리포트는
알아서 만들어져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
요.

5 공유 코드 하나로 함께

공유 코드를 배우자나 조부모에게 알려주
면 같은 기록을 봅니다. “언제 먹었지?”를
묻지 않게 돼요.

6 급할 때 · 나갈 때

열나는 새벽엔 응급 탭에서 가까운 응급실
지도를, 주말 나들이 전엔 유모차 지도를 확
인하세요.

디지털이 낯선 분도 쓸 수 있게, 핵심 기능은 전부 버튼 하나로 끝나게 만들었어요.

AI는 육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안아 줄 시간을
돌려줄 뿐입니다.

불편할 때마다 하나씩. 오늘도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